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영아의 애착*

김 미 정

방 희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와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심리과정인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영아의 애착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12~24개월 영아의 애착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영아의 애착 유형 분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았다.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12~24개월 영아와 어머니 101쌍을 대상으로 부모 발달 면접(PDI)과 낯선 상황 절차(SSP)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2-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낯선 상황 절차(SSP)를 실시한 결과, 안정형 70.3%, 불안정-회피형 16.8%, 불안정-저항형 5.9%, 비조직형 6.9%로 분류되었다. 둘째, 부모 발달 면접(PDI)을 통해 알아본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평균 5.28, 표준편차 1.36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영아의 안정 애착을 의미있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반영기능이 영아의 애착 유형을 옳게 예측할 확률은 90.1%이었으며, 반영기능이 1점 올라갈수록 영아의 애착 유형이 안정형일 가능성이 약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발달 면접(PDI)을 실시하여 어머니의 반영기능을 검증하였으며, 연구 결과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데 유의미한 예측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부모 발달 면접(PDI), 반영 기능 (reflective functioning), 애착, 낯선 상황 절차(SSP)

* 이 논문은 2014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hjbang@ewha.ac.kr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바로 주 양육자, 보통은 어머니와의 관계이다. 세상에 나온 아기가 처음 접하게 되는 환경들은 모두 새로운 곳이며, 세상은 모험적이고 신기한 동시에 엄청난 위압감을 조성하는 공포스러운 곳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기에게 세상에 대한 안정감 혹은 불안정감을 심어줄 수도 있는데, 이는 '애착'이라는 정서적 유대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Bowlby, 1958). 애착이란 1970년대 Bowlby에 의해 처음 설명된 이후로, 강력한 정서적 결속으로써 인간이 태어나서 생존을 위해 누군가와 형성하게 되는 '생존기제'로 현재까지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 완전한 조절체계를 완성시키지 못한 영아는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나 고통받는 경험을 느낄 때 외부로부터의 신호에 반응하게 되고 성인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생애 초기에는 주 양육자(주로 어머니)와의 근접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영아는 스트레스나 불안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친밀한 애착 대상에게 근접추구를 하고 다양한 접근 전략들을 사용함으로써 애착관계가 외현적으로 드러나 보이게 된다. 애착의 목표는 이러한 양육자와의 관계 내에서 '안전의 느낌'을 갖는 것이다. 영아는 탐색을 위한 '안전 기지 secure base'로 어머니를 사용함으로써 애착과 탐색을 상호작용 시스템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아는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영아의 애착 유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고안된 실험이 바로 낯선 상황 절차(The Strange Situation)이다(Ainsworth et al., 1978). 낯선 상황 절차는 선천적이면서 본

능에 의해 스트레스나 불안 상황에서 애착대상을 탐색을 위한 안전기지로 활용하고, 위협한 상황에서의 안전한 피난처로 사용하며, 이러한 이유로 근접성을 유지하려 애쓴다는 행동유형에 기반한 것이다.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 평정된 영아의 애착 유형은 안정애착(secure attachment: B), 불안정-회피애착(insecure-avoidant attachment: A), 불안정-저항애착(insecure-resistant attachment: C)으로 보고된다. 이후 Main (1999)의 연구에서 3가지 유형에 분류하기 어려웠던 사례들을 비조직 애착(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D)으로 명명하였다.

어머니와 안정애착(B)을 형성한 영아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삼아 능동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며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에서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때 영아들은 어머니에게 다가가거나 안기는 등의 접촉 행동을 보이고 다시 탐색을 위한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어머니를 안전 기지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정-회피 애착(A)의 경우, 이전의 경험적 결과로써 추가적인 분리나 부정적인 정서 상황을 줄이고자 어머니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애착 행동을 수정하여 행동한다. 예를 들어 낯설고 스트레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탐색만을 추구하며 어머니를 안전 기지로써 활용하지 못한다. 이와 다르게 영아가 부정적 정서 상황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어머니의 반응이 어떠한지 불확실성을 느끼는 경우에는 분노나 저항 혹은 어머니에 대한 근접성을 증가시키는 수동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불안정-저항 애착(C)을 형성하게 된다. 이 유형의 영아들은 심하게 울거나 어머니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거나 다시 탐색할

등을 떠나지 못하는 행동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불안정-회피, 불안정-저항 애착 유형 모두 어머니의 반응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영아들에게서 발달되는 전략인 것이다(Main, 1991). 이후 Main 과 Solomen은 1986년 새로운 유형을 주장하였는데, 이 유형을 비조직형(D) 애착으로 명명하고 분류하였다. 불안정-회피(A)와 불안정-저항(C) 유형의 영아들이 일관되고 조직화된 행동 패턴을 나타낸다면, 이 유형의 영아들은 조직화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 예를 들어 낯선 상황 절차에서의 애착 행동을 보이는 에피소드에서 불안해하거나 얼어붙거나(freezing) 공포스러운 표정을 짓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Cassidy & Shaver, 2008). 이러한 비조직형(D)애착의 경우는 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확대나 심한 처벌을 받은 경험으로 인해 애착 대상이 되어야 할 어머니가 위험한 트라우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뤄진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영아의 초기 애착이 후기의 발달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뇌 발달, 감정 조절, 관계에 대한 초기 표상이 장기적으로 발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Weinfeld, Sroufe, Egeland, & Carlson, 1999). 초기 Bowlby가 개념화한 내적 작동 모델은 애착 안정성에 의해 성장하며 이러한 정신 표상을 바탕으로 아동은 새로운 관계와 경험에 대한 이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발달에 대한 설명은 초기 애착관계가 이후의 대인관계능력이나 심리적 조정 및 자기 이해와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논의된다.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는 연구가 있을 뿐 아니라, 불안정한 애착은 이후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

을 거부할 것이라 믿는 사고를 공고하게 한다는 결과가 있다(박혜원, 손정락, 2012; 유고은, 방희정, 2011).

뿐만 아니라 초기 애착이 영유아기 이후의 발달 과정에서 더 광범위한 수준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질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어머니와 더 많은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에 대한 동기도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Frankel & Bates, 1990; Sroufe, Egeland, & Carlson, 1999). 또한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여 또래 갈등이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며, 어머니가 아동에 대한 믿음과 정서적인 지지를 더 많이 보일수록 유아가 문제해결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 특성들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희용, 방희정, 이순행, 2005; Berlin, Cassidy & Belsky, 1995).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는 아동의 정서조절과 관련되었다(최진아, 박은민, 2011).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에 비해 더 구조적인 분노 관리 전략을 사용하였으며(Gilliom, Shaw, Beck, Schonberg, & Lukon, 2002), 스트레스에 대한 구조적 대처능력을 보이기도 하였다(Contreras, Kerns, Weimer, Gentzler, & Tomich, 2000). 이러한 정서조절은 초기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 중기 애착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미네소타 종단 연구에서 초기 애착 안정성이 이후의 성격, 정서 건강, 자아 존중감, 주체성, 자신감, 긍정적인 정서, 자아 탄력성,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능력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안정애착을 형성하였던 아동들은 대부분 유능한 그룹에 속하였으며 자아 존

중감 역시 더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덜 공격적이며 다양한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덜 표출하였다(Sroufe et al., 2005). 이렇듯 초기 애착의 중요성들이 계속 되는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요인들과 지속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도울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아가 애착 대상을 안전 기지로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의 느낌'은 관계 내에서 영아가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이고, 이는 주양육자의 행동 뿐 아니라 영아의 내적 경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Sroufe & Waters, 1977a).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주양육자의 양육행동 못지않게 주 양육자가 영아의 내적 경험을 기민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애착 관계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아의 사회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애착 관계에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존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영아의 울음이나 표정과 같은 신호들을 해석하고 이에 적절한 반응을 제공하는 부모의 양육민감성(parental sensitivity)이 영아기 양육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주장해 왔다(Ainsworth, Bell, & Stayton, 1974). 특히 Ainsworth와 동료들(1978)은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 영아 사이의 차이를 이러한 양육 민감성에서 찾았으며, 실제 관찰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애착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지지되지 못하였다. 기존의 양육 민감성은 아동의 요구에 어머니가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을 민감성으로 정의하여 행동적인 측면에서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라는 측정 도구에 관한 문제점들이 대두되었기 때문

이다(Bretherton, 2010). 따라서 양육 민감성에 대한 후속 연구들은 양육 민감성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이며, 어떠한 도구를 통해 측정해 낼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이어나갔다.

이후 Fonagy(2001)의 연구에서 양육민감성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재개념화를 통한 정신화(metalization)와 반영기능(reflective functioning)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다. 반영기능(reflective functioning)이란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의 믿음, 느낌, 태도 등의 정신적 표상 상태를 생각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예측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정의된다(Fonagy, 2001; Bateman & Fonagy, 2004). 반영기능은 내면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행동 이면의 내적 상태를 느낄 수 있는 어머니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Slade, Grienberger, Bernbach, Levy, & Locker, 2005). 구체적으로 영아가 현재 몰입해 있는 감정 상태에 대해 타인이 정확하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를 투영해 줌으로써 영아는 일관성있는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선행 연구들은 아기를 수용하며 반응하는 엄마의 정신적 능력이 높은 것이 영아의 안정애착과 관련성을 갖는다는 결과를 주장하고 있다(Fonagy et al., 1995). 영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양육자를 통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으며, 따라서 민감한 양육자는 안정 애착을 지지하는 변인으로 보고되어왔다(Goldberg, Grusec, & Jenkins, 1999). Fonagy의 연구 결과는 아동의 내적 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능력이 정서적 균형과 유연성이 일관된 내적작동모델의 발달을 이끌며, 어머니의 마음 염두에 두기(mind - mindness)와 영아의 안정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발견을 확장시켰다(Meins, Fernyhough, Russell, & Clark-Carter, 1998). 또한 Bion의 성공적 안아주기(containment), Winnicott의 거울역할(mirroring),

Klein 학파에서 아기의 심리적 경험을 수용하고 이를 다시 전달하는 민감한 돌보기로써의 부모의 능력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반영기능의 역할을 설명하였다(Fonagy, 2001). 이러한 맥락에서 반영기능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는 정서를 함께 다루는 작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기존의 양육 민감성과는 다른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기존의 반영기능에 대한 연구는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달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인 애착 면접(AAI) 결과를 통해 반영기능을 평정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가 어렸을 적 정서적 박탈을 경험하였어도 개인의 반영기능이 높은 경우,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nagy, Steele, Steele, Morgan, & Higgitt, 1991a). 이는 자녀 출산 이전에 측정된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안정애착을 예언한다는 점에서 안정애착 형성을 위한 요인으로써의 반영기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결과이다.

Ainsworth는 영아의 애착 유형을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을 구분하면서 아이들이 그들의 엄마를 안정기반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가 유발되거나 부정적 정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용가능한 자원으로써 엄마를 중요한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을 언급하였다(Ainsworth et al., 1978).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경우, 양육자로부터 위로 받고 그로 인해 정서적 안도감을 가졌다. 이때 어머니는 영아의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읽고 그에 적절한 반응을 해 줌으로써 상호간의 조율된 의사소통 방식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타인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에 적절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반영기능과 동일한 맥락이다. Fonagy와 동료들(1991a)에 의해 연구된

런던 부모-자녀 프로젝트 London Parent-child Project에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의 양육자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양육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반영 기능을 보였다. 이는 아동의 내적인 정서 경험에 대해 반영하는 능력이 영아의 애착을 구성하는 질적인 측면의 예측요인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영기능 개념이 소개된 이후, 반영기능과 영아의 애착 간 관계에 대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부모의 성인애착 유형보다는 부모의 반영기능이 높은 것이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더 잘 설명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Fonagy et al., 1995). 또한 반영기능이 아동의 발달적 문제와 정신병리로부터 보호요인으로써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Fonagy & Target, 1998; Main, 1991). 다시 말해 반영기능은 애착관계에서의 심리화 수준, 심리건강, 병리, 자아기능을 나타내는 총체적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반영기능이 낮으면 아이는 불안정 애착을 보이고 정체성 문제, 자존감 저하, 외현화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반영 기능이 높은 경우에는 아이의 집중, 사회적 기술 및 적응력이 향상된다는 반영 기능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이 보고되었다(Slade et al., 2005). Yale에서 진행된 Minding the baby (MTB)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반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로 실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를 프로그램에 참여한 18개월 이후 사후검사 결과에서 부모 발달 면접(PDI)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좀 더 반영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아이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발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lade et al., 2005). 더하여 반영기능은 애착 안정성을 촉진

하고 유지하였는데, 이는 자녀 행동의 의도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이 아이의 자기조절과 정서조절을 촉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Fonagy, Steele, & Steele, 1991a).

국내에서 이뤄진 반영기능에 대한 연구는 성찰 기능 척도(Reflective Functioning Scale)을 활용한 심영숙(2010)의 연구가 있으며, 부모 자녀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인의 정신화(mentalization)의 맥락에서 의미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반영기능의 기능을 살펴보고, 민감함 양육의 맥락에서 반영기능과 관계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영아의 정서 조절, 사회성 발달, 자아 존중감 등 이후 삶에 있어 건강한 적응과 관련된 안정 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반영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육 행동 및 부모의 정신내적 기능에 대한 함의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12-24개월 영아의 애착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영아의 애착 유형 분류에 따라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12-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을 파악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어머니의 반영기능을 측정하고, 반영기능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을 예측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만 12-24개월의 정상집단 영아와 어머니 105쌍이다. 연구 대상은 인근지역 어린이집과 인터넷 육아 카페 및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어 모집하였다. 총 105쌍의 사례 중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사후 검사가 필요한 2사례, 입양 2사례를 제외하고 총 101사례만을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101쌍의 영아는 남아 46명, 여아 55명이었다. 전체 영아의 평균 개월 수는 18.06개월($SD=3.83$)이었으며, 22개월 영아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 남아의 평균 개월 수는 17.96개월($SD=4.12$), 여아는 18.15개월($SD=3.61$)이었다. 출생순위를 볼 때, 연구 참여 영아의 67.4%가 첫째에 해당되었다. 어머니의 경우, 연령과 학력이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17세 ($SD=2.82$)였으며, 31-35세가 67.3%로 가장 많았다. 학력의 경우, 80.2%가 대졸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보였다.

연구 도구

부모 발달 면접(Parental Development Interview: PDI)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반영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부모 발달 면접 (Parental Development Interview: PDI) 이다. 부모 발달 면접(PDI)은 Slade 와 동료들이(2005)이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의 반영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면접이다. 기존의 성인애착면접(AAI)를 통한 반영기능의 평정과 다르게, 주 양육자와 영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반영기능을

알아보고자 개발되었다. 따라서 면접 내용들은 주로 주 양육자와 자녀에 대한 내용들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전체 면접은 1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정해진 질문 절차에 따라 면접자의 질문에 영아의 어머니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면접 내용은 아동과 관련된 질문, 아동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 양육에서 느끼는 정서적 경험, 어머니의 어렸을 때 가족사, 자녀와의 분리나 상실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질문 목록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면접 과정은 연구 참여자인 어머니의 동의하에 녹음되며, 면접을 마친 뒤 녹음 내용을 전사본으로 풀어내어 평정하게 된다. 채점 기준은 정신 상태 본질에 대한 자각, 행동기저의 정신 상태를 알아내려는 외현적 노력, 정신 상태의 발달적 측면 인식, 면접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신 상태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4가지 영역에 속한 세부 기준에 따라 각 질문에 대하여 -1점에서 9점까지의 점수를 준다. 각 질문에 대한 점수가 주어지면 이를 고려하여 면접 내용 전체에 대한 평정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1점은 부적 반영기능으로 응답자의 반응이 전혀 반영적이지 않거나 적대적, 기이한 것을 뜻한다. 최고점인 9점은 뛰어난 반영기능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이 놀라운 통찰을 보이거나 매우 복합적인 마음 상태에 대한 추론이 대체로 일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답변들이 일관된 성찰을 보일 때 9점을 받게 된다.

낮선 상황 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 SSP)

본 연구에서 영아와 어머니의 애착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insworth와

표 1. 낮선 상황 절차 (Strange Situation Procedure: SSP)

장면	시간	구성원	행 동 기 술
1	30초	연구자, 어머니, 영아	연구자는 어머니와 아동을 실험실로 안내한 후 퇴실한다.
2	3분	어머니, 영아	어머니는 착석하고 아동을 혼자서 놀게 한 후, 아동이 먼저 상호작용을 원할 때만 반응한다.
3	3분	어머니, 영아, 낯선이	낯선이가 들어와서 처음 1분 동안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1분이 지나면 어머니에게 말을 건넨다. 하지만 1분 동안 낯선이가 아동에게 장난감을 건네면서 놀아 준다. 3분이 되면 어머니는 혼자 조용히 밖으로 나간다.
4	3분	영아, 낯선이	낯선이는 아동에게 먼저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고 원할 때만 응해준다.
5	3분	영아, 어머니	어머니가 영아의 이름을 부르며 방으로 돌아온다. 아동이 접촉을 원하면 편안하게 해준 뒤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한다. 3분이 되면 어머니는 아동에게 ‘안녕’이라고 말한 후 방 밖으로 나간다.
6	3분	영아	아동 혼자 방에 있게 된다.
7	3분	영아, 낯선이	낯선이가 들어와서 아동에게 먼저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고 원할 때만 응해준다.
8	3분	영아, 어머니	어머니가 아동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고 아동이 원하면 안아 준다.

Wittig가 개발한 낯선 상황 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 SSP)를 사용하였다. 낯선 상황 절차는 만 12-24개월 영아의 애착을 측정하는 검사법으로, 실험실에서 어머니와 분리 및 재결합, 낯선이의 출현에 대해 아동이 보이는 행동을 평정하여 영아의 애착을 분류하는 구조화된 평가 절차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 절차

어린이집과 인터넷 육아 카페 및 사이트에 연구 내용을 알리고,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신청자 중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만 12-24개월 영아와 어머니 101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약 일주일 간격으로 총 2회 방문하여 진행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내 발달심리관찰실과 발달 장애 아동 센터에서 낯선 상황 절차(SSP) 녹화 및 부모발달면접(PDI)이 이뤄졌다. 첫 방문에서는 사전에 안내되었던 연구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았다. 그 후, 낯선 상황 절차(SSP)의 진행과 기초 면접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어머니의 반영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부모 발달 면접을 진행하였다.

결 과

영아의 애착유형 분포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 알아본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은 어머니와의 재결합 에 피소드에서 보이는 영아의 행동을 기반으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12-24개월 영아의 애착 유형은 안정형(B), 불안정-회피형(A), 불안정-저항형(C), 비조직형(D) 으로 분류되었다. 3범주 분류에서는 비조직형 사례를 제외한 후 보고하였으며, 2범주 분류에서는 안정형과 비(非)안정형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2>에 보고된 영아의 애착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101명 중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71명으로 70.3%를 차지하였다. 2범주 분류에서 비(非)안정형 영아는 30명 29.7%였으며, 4범주 분류를 통해 구체적인 애착 유형을 살펴보면 불안-회피형(A)은 18.8%, 불안-저항형(C)은 5.9%, 비조직형은 6.9%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반영기능

부모발달면접을 통해 평정된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1점에서 9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전체 101명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평균 5.28, 표준편차 1.36으로 나타났다.

표 2.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 분포

영아 애착 유형		4범주	3범주	2범주
안정	안정형(B)	71 (70.3)	71 (70.3)	71 (70.3)
	불안-회피형(A)	17 (16.8)	17 (16.8)	
비안정	불안-저항형(C)	6 (5.9)	6 (5.9)	30 (29.7)
	비조직형 (D)	7 (6.9)	-	
전체		101 (100)	94	101 (100)

표 3. 영아의 애착 유형 분류에 따른 어머니 반영기능의 평균과 표준편차

영아의 애착 유형	안정애착(B)	불안-회피(A)	불안-저항(C)	비조직형(D)
어머니의 반영기능	5.95 (.87)	3.85 (.90)	3.83 (1.17)	3.21 (.81)

각 유형 별 평균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먼저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는 반영기능 평균이 5.95, 표준편차 .87로 비(非)안정형 애착인 영아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불안-회피형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은 3.85, 표준편차 .90, 불안-저항형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3.83, 표준편차 1.17, 비조직형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3.21, 표준편차 .81로 나타났다. 영아의 애착 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반영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정애착의 반영기능

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로 나타났다. <표 4>에 제시되었듯이, 4범주 유형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은 45.93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나타나 각 유형 간 구체적인 평균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의 애착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반영기능의 사후비교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안정애착과 비(非)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 반영기능의 평균

표 4. 영아의 애착 유형 분류에 따른 어머니 반영기능의 분산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어머니의 반영기능	집단 간	108.99	3	36.33	45.93**
	집단 내	76.72	97	.79	
	전체	185.71	100		

** $p < .01$

표 5. 영아의 애착 유형 분류에 따른 어머니 반영기능의 사후 비교 분석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안정애착 (B)	불안-회피(A)	2.10**	.24	.000
	불안-저항(C)	2.12**	.38	.000
	비조직형 (D)	2.74**	.35	.000
불안-회피 (A)	불안-저항(C)	.02	.42	1.000
	비조직형 (D)	.64	.40	.469
불안-저항 (C)	비조직형 (D)	.62	.49	.668

** $p < .01$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각각의 유형에서 모두 유의확률 $p < .01$), 비 안정애착 유형들 간의 점수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들은 비조직형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 보다 반영기능이 2.7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저항형 보다는 2.12점, 불안-회피형 보다는 2.10점이 높았다.

어머니의 반영기능에 따른 영아의 애착유형

부모 발달 면접을 통해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영아의 애착 유형을 의미있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란 종속변수가 연속변수가 아닌 2가지 이상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 분석이 가능한 방법으로, 일반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거나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영아의 애착 유형은 안정애착, 불안-회피, 불안-저항, 비조직형의 4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안정애착 유형간의 반영기능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영기능에서의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인 안정 애착과 불안정애착의 2범주 변인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영아의 애착 유형에 대한 어머니의 반영기능에 대한 검증 결과, 반영기능에 의해 안정 애착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chi^2 = 76.497$, $p < .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애착의 경우, 86.7%, 불안정 애착의 경우, 91.5%가 정확히 분류되어 전체적으로는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영아의 애착 유형을 예측할 확률이 9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애착에 대한 어머니 반영기능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표 7>와 같이, $Wald=21.10$, $p < .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아의 안정애착과 불안정 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1점 올라갈 경우 영아의 애착 유형이 안정형일 확률은 불안정형일 확률에 비해, 15.04배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표 6.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영아의 애착 유형 간 분류의 정확도

분류	안정	비안정	전체	정확도
안정	26	4	30	86.7
비안정	6	65	71	91.5
전체	32	69	101	90.1

$\chi^2 = 76.497$ (df=1, p=.000) Nagelkerke $R^2 = .755$

표 7.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영아의 애착 유형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B	Wald	유의확률	Exp(B)
어머니의 반영기능	2.71	21.10	.000	15.04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반영기능과 영아의 애착 간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2-24개월 영아와 어머니 101쌍을 대상으로 부모발달면접(PDI)과 낯선 상황 절차(SSP)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낯선 상황 절차를 통해 12-24개월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 분포를 알아보았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영아의 애착 유형을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만 12-24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낯선 상황 절차(SSP)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전체 101명 중 71명으로 70.3%에 해당했다. 불안-회피형(A)은 16.8%, 불안-저항형(C)은 5.9%로 나타났다. 또한, 4범주 분류에서의 비조직형(D)은 101명 중 7명으로 6.9%에 해당했다. 2범주 분류에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70.3%, 비안정형(불안-회피형(A), 불안-저항형(C), 비조직형(D)) 영아는 29.7%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유형 분포는 국외 연구에서 보고된 영아 애착 유형 분포와 비교하여 안정형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van IJzendoorn, Kroonenberg, 1988). 문화적인 환경차이를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 이뤄진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보면, 박혜주 외(2005)의 연구에서는 안정형 63.9%, 불안-회피 13.9%, 불안-저항 11.1%, 비조직형 11.1%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국내 연구의 영아 애착 분포와 비교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의 안정 애착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2004; 김은하, 2003; 옥정, 2012).

본 연구에서 안정형의 분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자발적인 참여

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자녀를 동반한 2차례의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설문 및 모든 연구 과정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자녀양육과 애착에 관심이 높은 특성을 가진 어머니들이 많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전체 대상 영아의 73.3%가 첫째 자녀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현재 자녀 양육 환경이 좀 더 대상 아동에게 집중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어머니를 대상으로 반영기능을 알아본 결과, 평균 5.28, 표준편차는 1.36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값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sbjörn, B. et al., 2013; Jessee, A. 2012). 또한, Sroufe의 반영기능 평정체계에서 5점을 보통 수준의 반영기능으로 평정하는 것과 비교하여서도 평균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어머니는 비안정 애착유형(불안-회피, 불안-저항, 비조직형) 아동의 어머니 보다 높은 반영기능을 보고하였다. 비조직형(D)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어머니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가장 낮은 반영기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낮을수록 아동이 정서 조절 및 표현에서의 전략을 조직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함의점을 제시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MTB (Minding the baby) 개입에서 초기 낮은 반영기능을 보인 어머니들이 개입 18개월 후 질적으로 상승된 반영기능이 보고되었으며, 아동의 경우에는 낯선 상황 절차에서 비조직적인 모습을 보인 사례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유의미하게 영아의 안정애착을 예측해 낼 수 있었다. 앞서 보고된 안정과 비안정 애착 유형들 간의 반영기능 점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결과들과 동일하게 어머니의 높은 반영기능이 영아의 안정 애착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Fonagy et al., 1991a ; Fonagy et al., 1995; Fonagy & Target, 1998; Slade, Sadler, & Mayes, 2005). 높은 반영기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은 안정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낮은 반영기능을 보인 어머니의 자녀들은 비(非)안정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높은 반영기능을 보인 어머니들의 자녀가 안정애착으로 예측될 확률은 86.7%로 나타났으며, 반영기능이 1점 상승할 때, 안정애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15배 증가한다는 점은 영아의 애착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변인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이다.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자녀의 안정 애착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생각된다. 반영기능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내적 상태 뿐 아니라 자녀의 내적 상태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 맥락에서의 행동과 내적 상태에 대해 기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높은 반영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의도,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능력은 더 나은 정서 조절을 이끌 수 있었다(Fonagy & Bateman, 2006). 이러한 아동 행동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은 아동의 자기조절과 정서 조절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 발달 면접(PDI)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반영기능을 알아본 논문이다. 정신화(mentalization)에 대한 연구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에 초점을 두고 반영기

능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 발달 면접(PDI)은 반구조화된 면접으로써 기존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들과 비교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어머니의 반영기능을 측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인이 아닌 부모-자녀 관계의 맥락에서 반영 기능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룬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치료 및 상담영역에서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영아의 안정애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산부와 예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써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영기능을 적용시킨 이전의 개입들이 효과성을 보인 것을 통해 반영기능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 애착증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 발달 면접(PDI)을 통해 어머니의 반영기능을 알아보았다. 현재 국내에서 반영기능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다. 또한 국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반영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성인 애착 면접(AAI)과 부모 발달 면접(PDI)을 통한 반영기능의 측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발달 면접(PDI)이 부모-자녀 관계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개인이 아닌 부모로써의 반영기능을 더 잘 설명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 부모 발달 면접(PDI)를 통한 어머니의 반영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본 연구 결과에 대

한 추가적인 해석 및 검증이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부모 발달 면접(PDI)은 여전히 표준화된 방식의 객관적 지표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자의 역량에 따라 대상자의 답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접 대상자의 언어적 능력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고려된다. 또한 면접 대상자의 정신내적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방어적인 면접 태도를 민감하게 배제해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시되는 질문 문항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민감하게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할 때 부모의 반영기능을 보다 더 세심하고 심층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12-24개월 영아와 어머니 쌍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경우, 2회의 방문과 자발적인 연구 참여라는 점에서 양육 및 애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 특성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집단의 특수성을 띄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표집을 통해 선별된 연구 대상들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낯선 상황 절차(SSP)를 활용하기 위해 대상 영아의 연령이 제한되었는데 후속 연구들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영아와 그 부모에 대한 애착과 반영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어머니의 심리 내적 특성인 우울, 불안, 양육 스트레스와 반영기능간의 관계를 함께 다루어 반영기능이 다른 특성들과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지 그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영기능이 어머니의 개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 또한

안정적인 애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입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반영기능의 독립적인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룬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영아의 현재 애착유형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더하여 어머니의 반영기능은 자녀의 애착 안정성(stability)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착 안정성(stability)란 초기 부모-자녀 간 형성된 애착이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애착의 질이 중요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애착의 지속성은 민감하고 지지적인 부모와의 관계인 것으로 생각된다(Lamb, Thompson, Gardner, & Charnov, 1985). 이러한 민감하고 지지적인 부모는 높은 반영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며, 부모의 반영기능을 통해 아동의 애착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세대간애착의 전이 뿐만 아니라 애착 안정성의 맥락에서 반영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가 필요할 것이며, 관련된 애착에 관한 중단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하 (2003). 낯선 상황에서(*Strange Situation*) 영아들의 애착 행동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지연 (2004). 낯선 상황에서 연령에 따른 애착 행동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원, 손정락. (2012). 성인 초기의 경계선

- 성격성향자의 기질,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애착.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16.
- 박혜주, 이순행, 최해훈, & 방희정. (2005). 낯선 상황에서 영아들의 애착과 정서조절간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23-38.
- 성희용, 방희정, 이순행. (2005). 문제해결 상황에서 어머니 행동특성과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57-74.
- 심영숙 (2010). 성찰기능과 정신병리의 관계 - 외상과 악몽을 중심으로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육정 (2012). 아버지 애착의 세대간 전이: 탐색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유고은, 방희정.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03-122.
- 최진아, & 박은민. (2011). 아동의 애착, 사회적 유능감,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49(10), 103-113.
- Ainsworth, M. D. S., Bell, S. M., & Stayton, D. J. (1974). *Infant-mother attachment and social development*. In M. P. Richards (Ed), *The introduction of the child into a social world* (pp. 99-135).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teman, A. & Fonagy, P. (2004). *Psycho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lin, L. J., Cassidy, J., & Belsky, J. (1995). Loneliness in young children and infant-mother attachment: A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1982-)*, 91-103.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child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retherton, I. (2010). Father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a review.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 9-23.
- Cassidy, J., & Shaver, P. R. (Eds.). (1999).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Rough Guides.
- Cassidy, J., & Shaver, P.R. (Eds.). (2008).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Contreras, J. M., Kerns, K. A., Weimer, B. L., Gentzler, A. L., & Tomich, P. L. (2000).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of associations between mother - child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1), 111.
- development and changes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Esbjørn, B. H., Pedersen, S. H., Daniel, S. I., Hald, H. H., Holm, J. M., & Steele, H. (2013). Anxiety levels in clinically referr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Examining the unique influence of self reported attachment styles and interview based reflective functioning in mothers and fathers. British

-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2(4), 394-407.
- Fonagy, P. (2001).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New York: Other Press.
- Fonagy, P., & Bateman, A. W. (2006). Mechanisms of change in mentalization based treatment of BP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4), 411-430.
- Fonagy, P., & Target, M. (1998). Mentalization and the changing aims of child psychoanalysis. *Psychoanalytic Dialogues*, 8(1), 87-114.
- Fonagy, P. G., Jurist, G., & Target, E.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ed. New York: Other Press.
- Fonagy, P., H., Steele, H., & Steele, M. (1991a).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Fonagy, P., Steele, M., Steele, H., Morgan, G. S., & Higgitt, A. C. (1991). The capacity for understanding mental states: The reflective self in parent child and its significance for security of attach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2(3), 201-218.
- Fonagy, P., Steele, M., Steele, H., Leigh, T., Kennedy, R., Mattoon, G., & Target, M. (1995). Attachment, the reflective self, and borderline states. In S. Goldberg & J. Kerr (Eds). *Attachment research: The state of the art* (pp. 233-278). New York: Analytic Press.
- Frankel, K. A., & Bates, J. E. (1990). Mother Toddler Problem Solving: Antecedents in Attachment, Home Behavior, and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1(3), 810-819.
- Gilliom, M., Shaw, D. S., Beck, J. E., Schonberg, M. A., & Lukon, J. L. (2002). Anger regulation in disadvantaged preschool boys: strategies, antecedents, and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222.
- Goldberg, S., Grusec, J.E., & Jenkins, J.M. (1999). Confidence in protection: Arguments for a narrow definition of attach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475-483.
- Jessee, Allison C. (2012). "The role of reflective functioning in predicting parenting and coparenting qual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75-01B(E), [S.I.]: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Lamb, M. E., Thompson, R. A., Gardner, W., & Charnov, E. L. (1985). *Infant-mother attachment: The origins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nge Situation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Levy, K. N., Meehan, K. B., Kelly, K. M., Reynoso, J. S., Weber, M., Clarkin, J. F., & Kernberg, O. F. (2006). Change in attachment patterns and reflective function in a randomized control trial of transference-focused psychotherapy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6), 1027.
- Main, M. (1991). *Metacognitive knowledge, metacognitive monitoring, and singular(coherent) vs. multiple (incoherent) model of attachment: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 127-159). New York, NY: Tavistock/Routledge.

- Main, M. (1999). Attachment theory: Eighteen points with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845-888). New York: Guilford.
- Main, M., & Solomon, J. (1986). Discovery of an insecure-disorganized/ disoriented attachment pattern. In T. B. Brazelton & M. Yogman (Eds.), *Affective development in infancy*. Norwood, NJ: Ablex.
- Meins, E., Fernyhough, C., Russell, J., & Clark Carter, D. (1998). Security of attachment as a predictor of symbolic and mentalising abilities: A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7(1), 1-24.
- Slade, A., Sadler, L. S., & Mayes, L. C. (2005). *Minding the Baby: Enhancing Parental Reflective Functioning in a Nursing/Mental Health Home Visiting Program*.
- Slade, A., Grienenberger, J., Bernbach, E., Levy, D., & Locker, A. (2005).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attachment, and the transmission gap: A preliminary stud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3), 283-298.
- Sroufe, L. A., & Waters, E. (1977a).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Sroufe, L. A., Egeland, B., & Carlson, E. A. (1999). One social world: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hips. In Relationships as developmental context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30, pp. 241-261
- Sroufe, L. A., Egeland, B., Carlson, E., & Collins, W. A. (2005). *Placing early attachment experiences in developmental context. Attachment from infancy to adulthood: The major longitudinal studies*, 48-70.
- Weinfield, N. S., Sroufe, L. A., Egeland, B., & Carlson, E. A. (1999). The nat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 - caregiver attachment. In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68-88).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xvii
- van IJzendoorn, M. H., & Kroonenberg, P. M. (1988).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A meta-analysis of the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59: 147-156.

1차원고접수 : 2017.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7. 08. 21.
최종게재결정 : 2017. 08. 31.

Mother's Reflective Functioning and Infant's Attachment

Mi-Jeong Kim

Hee-Ju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mother's Reflective Functioning(RF), ability to understand that behavior if meaningfully linked to underlying mental states, and infant's attachm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o identify connections between mother's RF and infant's attach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101 infants were classified by Strange Situation Procedure(SSP), 70.3% were classified as secure type(B), 16.8% as insecure-avoidant type(A), 5.9% as insecure-resistant type(C), 6.9% as disorganized type(D). Second, mothers whose infants classified by Secure attachment(B) were the highest RF score.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mother's reflective functioning significantly predicted the infant's attachment. The higher the mother's reflective functioning to form a secure attachment increases the probabilit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F is an important predictor of infant's attachment.

Key words : *Parental Development Interview(PDI), reflective functioning(RF), attachment, strange situation procedure(SSP)*

부 록

부모 발달 면접(PDI)

< 아동 관련 >

오늘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당신의 아이와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럼 잠깐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 가족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은 몇 명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양육 환경이 좀 낡았다면 주양육자는 누구였는지? 예를 들어 이혼, 잦은 이사 등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 조금 자세히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당신의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당신의 아이를 묘사해줄 수 있는 형용사를 3개 골라 주세요. (형용사를 대는 동안 멈춘다) 자 이제 각각의 형용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 1과 관련된 사건이나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각각의 형용사와 관련된 특정 기억을 얻도록 작업한다)
2. 그럼 이번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을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를 3개 골라 주세요. (형용사를 대는 동안 멈춘다) 자 다시 각각의 형용사로 되돌아가 형용사 1과 관련된 사건이나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각각의 형용사와 관련된 특정 기억을 얻도록 작업한다)
3. 좋습니다. 다시 아이에게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평상시에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혹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언제입니까?
4.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나 활동은 무엇입니까?
5. 아이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6. 아이에 대해서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 관계 관련 >

1. 당신과 아이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느껴지는 형용사 3개를 골라 주세요. (형용사를 대는 동안 멈춘다) 자 다시 각각의 형용사로 돌아가서 형용사 1과 관련해 떠오르는 사건이나 기억이 있습니까? (각각의 형용사와 관련된 특정 기억을 얻도록 작업한다)
2. 지난 일주일 동안 아이와 정말 힘들었던 때를 묘사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깊이 질문한다.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주세요. 어떻게 느꼈나요? 아이는 어떻게 느꼈다고 생각하세요?)
3. 그럼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이와 힘들지 않게 잘 지낸 시간을 묘사해 주세요. (필요하

다면 깊이 질문 한다: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주세요. 어떻게 느꼈나요? 아이는 어떻게 느꼈다고 생각하세요?)

4. 당신과 아이와의 관계가 아이의 성격과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 양육에서의 정서적 경험 >

1. 자 이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로서의 당신을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를 3개 골라 주세요. (형용사를 대는 동안 멈춘다) 이제 각각의 형용사를 다시 돌아갑니다. 형용사 1과 관련된 사건이나 기억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각각의 형용사와 관련된 특정 기억을 얻도록 작업한다)
2. 부모로서 가장 즐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3.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4. 아이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하나요?
5. 아이 때문에 당신에게 변화된 점이 있나요?
6. 한 두 주 안에 부모로서 정말 화가 났던 때를 이야기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깊이 질문한다: 이렇게 화가 나도록 만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화난 감정은 어떻게 다스리나요?)
 - 6a. 이렇게 화난 감정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7. 한 두 주 안에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꼈던 때를 이야기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깊이 질문한다: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죄책감은 어떻게 다스리나요?)
 - 7a. 이러한 죄책감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8. 한 두 주 안에 누군가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깊이 질문한다: 보살핌을 받고 싶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 8a.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느낌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9. 아이가 무척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당신 기분은 어떤가요? 아이가 무척 화가 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10. 아이가 거부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을까요?

< 부모의 가족사 >

자 이제 당신의 부모님과 당신의 어릴 때 경험이 부모로서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1. 어린 시절 양육 경험이 현재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 하나요?
2. 당신의 어머니 같은 부모가 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3. 당신의 아버지 같은 부모가 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4. 부모로서 당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부분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5. 부모로서 당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부분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 분리 / 상실 >

1. 이제 당신과 아이가 떨어져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때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요?)
(최근 1년 안의 경험을 떠올리지 못할 경우 최근의 분리를 떠올리도록 다시 한 번 질문한다.)
2. 잠시라도 아이를 잃은 것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3. 아이는 모르더라도 아이가 앞으로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당신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있나요?

< 되돌아보기 / 앞 내다보기 >

1. 아이와의 경험, 부모로서의 당신의 경험을 모두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바꾸고 싶고 어떤 것을 바꾸고 싶지 않나요?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